

ISSN 1226-9638

#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6

제 35권 제2호 통권 38호

이병태 특집호

大韓齒科醫史學會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년 10월 7일 창립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1960년 10월 7일 창립되어 대한치과역사학회를 이끌어 오셨던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열정의 결과로 ‘대한치과의사학회 50년사’라는 걸출한 연구결과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학회설립의 회갑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치과계를 둘러보며 다시 한번 인문학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이병태 전 학회장님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학회로서는 중요한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학회 설립초반부터 많은 일에 관여하셨기에 항상 상의하고 의존하여 살아오셨기에 상실감은 더 했습니다.

슬픔에 젖어 낙심하고 있기에는 학회는 다가오는 미래를 받아들이 줄 알아야 했습니다. 이번호에는 이병태 전 학회장님을 기념하여 특집호를 발행하므로 치과의사학의 역사에 기록합니다. 치과의학계와 문학계에서, 또한 산악계를 폭넓게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 및 업적을 남기시고 남북치의학교류위원회 창립 및 공동대표를 맡으셨던故 이병태 선생님을 회고합니다. 특집호를 발간을 통해 많은 회원님들과 활발한 교류 및 소통으로 발전해나가는 대한치과 역사학회가 되겠습니다.

학회는 회원님들의 연구 성과를 말과 글로 발표하고, 동료, 선후배 회원들과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소통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에 전공과 나이를 넘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고, 지회와 연구회가 활성화되어 회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학술지가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알리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박 준 봉



### 〈이병태 회장님〉

1942년 9월 20일 서울에서 출생  
1955년 3월 3일 서울 중암초등학교 28회 졸업  
1961년 3월 2일 동성고등학교 35회 졸업  
1967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21회 졸업  
1969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과보철학전공  
치의학석사  
1976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과보철학전공 의학박사  
1975년 3월 2일~1983년 8월 3일 신구대학 치기공과 총의치학 담당  
1977년~1983년 대한치과보철학회 이사와 감사 역임  
1979년~1986년 서울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창립 발기하여  
1-4대 감사 역임  
1997년 11월 27일 대한치과보철학회 인정의 제44호  
2016년 7월 9일 작고 (향년 74세)

# 목 차

인사말	3
박준봉 회장(President)	
전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7
고 이병태 박사님 영결식 순	
이병태 박사님의 삶과 치과의사학	12
신재의(Shin, Jae-Ui)	
추도사	
1. 남북치의학교류협회 사무총장 김 선	28
2. 대한치과의사학회 고문 변 영 남	29
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동문회 회장 백 승 진	30
치과의사는 누구인가? 치의학이란 무엇인가?	32
신재의(Shin, Jae-Ui)	
이름과 제품 속에 숨은 치의학 역사 이야기	35
권 훈(Kweon, Hoon)	

**전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고 이병태 박사님 영결식 순**



2016년 7월 12일 오전 6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고 이병태 박사님 영결식 순

- 1. 개식선언 ----- 사회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박준봉 (1)
- 2. 고인에 대한 묵념 ----- 참석자 전체 (1)
- 3. 약력낭독 -----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박준봉 (3)
- 4. 추 도 사 ----- 서울치대 보철학동문회 백승진 (3)  
남북치 의학교류협회 사무총장 김선 (3)
- 5. 조 사 ----- 대한치과의사학회 변영남 고문님 (4)
- 6. 조객현화 ----- 현화 하지 못하신 분, 단체 (4)
- 7. 영구차출발 ----- 전 체
- 8. 폐식선언 ----- 사 회

고 이병태 (李丙台) 박사님 약력

1942. 9.20 서울 生

< 학 력 >

- 1955. 3. 3 서울 종암초등학교 졸업 (28회)
- 1961. 3. 2 동성고등학교 졸업 (35회)
- 1967. 2. 26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21회)
- 1969. 2. 26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과보철학전공 치의학석사
- 1976. 2. 26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과보철학전공 의학박사

< 경 력 >

- 1966. 11. 15.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유경) 공보위원
- 1967. 4,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인턴, 레지던트(~1969년)
- 1969.~71 국방의무. 육군대위
- 1973. 7. 3 이병태치과의원 개설
- 1975. 6. 20 대한치과의사협회 상임편집위원
- 1979.~1986 서울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창립 발기인. 1, 2, 3, 4대 감사

< 저 술 >

- 1976. 2. 26 치과보철기공학 펴냄
- 1977. 1 월간치과연구 창간  
8. 25 치과보철용어해설집 공저
- 1980. 10. 25 치주과학용어해설집, 대한치주과학회편 / 공저
- 1982. 치과의학사전 펴냄  
현재 이치과의학사전 발간 준비중
- 1988. 4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편찬위원장
- 1995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사 및 부록 서울치과의원지도 펴냄
- 1997. 6. 9 MBC라디오 골든마우스 그리고 Face-Mask 펴냄
- 1999. 12. 25 우리는 실험을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민을 했었다, 펴냄
- 2001. 3. 10 치의학역사산책, 펴냄

- 1999. 6. 12~2007. 9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사편찬위원장
- 2002. 1. 9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박물관 운영위원
- 2003. 1. 19 한국 근현대 치의학의 역사박물관, 편찬위원장
- 2007. 2. 16 대한치과의사문인회 2대 회장
- 2007. 12. 2 서울대학교 치과보철학 동문회30년사, 편찬위원장
- 2014. 3. 31 영한한, 이 치의학사전

< 학회활동 >

- 1977~1983 대한치과보철학회 이사(10) / 감사(11, 12)
- 1989. 2013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 2002. 7. 4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창립발기인 / 감사
- 2009. 3 대한컴퓨터수복재건치의학회 창립총회 임시의장 / 고문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치의학 교류 추진 >

- 1990. 6. 23 북경의과대학 구강의학원 방문, 양국 학술교류 합의
- 1990. 6. 26 연변의학원 구강학부 및 병원 방문
- 1997. 6. 6~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제2인민병원 명예원장

### 〈 대북 치과진료 및 교류 〉

2001. 7. 11 남북치의학교류협회창립 공동대표  
 2005. 3. 23 금강산 국제관광총회사 공동대표 온정인민병원 기술협력 합의  
 2005. 9. 27 북측 고성군내, 금강산온정인민병원 치과진료소, 진료개시  
 2006. 9. 27 금강산온정인민병원 개소 기념 및 북한구강의학용어집 출판  
 2008. 11. 22 평양 중앙적십자병원 치과유닛 설치  
 2009. 2. 3. 금강산병원(현대아산)에 치과진료실 개소, 유닛케어 설치.  
 2010. 3. 5. 금강산병원(현대아산)치과진료소 시설 지원 차 방북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YB / OB 산악회 〉

1994. 6. 29~7. 10 서울치대 산악회 요세미티 엘캐피탄 등반대장

### 〈 문학분야 (現) 〉

수필집《작두기로 통하는 나》펴냄  
 현대문학 1981, 1983, 1986호 게재로 현대문학 문인주소록에 등재  
 1991.5.10 중국치의학계 기행수필집 《북경, 연변 그리고 백두산》 펴냄  
 1994. 6. 29. 산악수필집 《설악산식사당번》 펴냄  
 한국수필가협회 정회원 /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정회원  
 조병화시인 기념사업회 멋회원 / 대한치과의사문인회 명예회장

### 〈 사회활동 〉

1983. 1. 03 MBC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병태입니다’ 진행  
 1989. 7. 01 KBS 라디오서울 ‘가로수를 누비며’ 진행 / MC  
 1988. 12. 5 교통친절봉사단 상임고문 역임  
 1990. 2. 24 한국에서가클럽 창립부회장 역임  
 1997~2000 한국산서회장 역임  
 2005 금강산사랑운동본부 공동대표 역임

### 〈 수상 〉

1987. 10. 16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문화상  
 1991. 12. 09 서울신문사-교통부, 교통봉사 특별상  
 2000. 3. 25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제8회 공로대상

2000. 12. 02 한국대학산악연맹, 산악문화상 한국산서회 회장

2007. 3. 24 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봉사상 남북치의학교류협회 회장

2010. 2. 23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치과인 동문상

### 〈 교육경력 〉

1975. 3. 2.~1983. 8. 3 신구대학 치기공과 총의치학 강좌 담당  
 1981. 6. 1~1985.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조교수  
 1986. 3. 1.~1989. 2. 28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부교수  
 1991. 3.~2006. 7 경희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의사학 강좌 담당  
 2010. 4. 16 / 5. 3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특강, 치과의사학

# 이병태 박사님의 삶과 치과의사학

신 재 의

Shin, Jae-Ui



## 이병태 박사님의 삶과 치과의사학

치의학박사/문학박사/대한치과의사학회 고문  
신 재 의

치과의사란 말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대단히 넓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미지들은 고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주의적 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 1. 학력과 경력

이병태는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암초등학교와 동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했다. 이병태 (李丙台) 박사님! 치과의사로 완벽한 분이라 할 수 있다. 1967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 대학원에서 치과보철학을 전공하시어 석사(1969년), 박사과정(1976년)을 이수하시고, 동 대학병원에서 인턴(1967년), 레지던트(1969년)를 수련하여 치과의사로서의 삶과 후학 양성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이다.

1942년 9월 20일 서울에서 출생

1955년 3월 3일 서울 중암초등학교 28회 졸업

1961년 3월 2일 동성고등학교 35회 졸업

1967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21회 졸업

1969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과보철학전공 치의학석사

1976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과보철학전공 의학박사

1975년 3월 2일~1983년 8월 3일 신구대학 치기공과 총의치학 담당

1977년~1983년 대한치과보철학회 이사과 감사 역임

1979년~1986년 서울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창립 발기하여 1-4대 감사 역임

1997년 11월 27일 대한치과보철학회 인정의 제44호

1981년 6월 1일~1985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조교수

1986년 3월 1일~1989년 2월 28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부교수

2002년 1월 9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박물관 운영위원

2002년 7월 4일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창립 발기인 / 감사

2009년 3월 대한컴퓨터수복재건치의학회 창립총회 임시의장 / 고문

2010년 4월 16일, 5월 3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3학년 특강(치과의사학)

2015년 3월 1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겸임교수 치의학의 역사를 담당

2016년 7월 9일 작고 (향년 74세)

### 2. 저서

『깎두기로 통하는 나』로 통하는 이병태는 ‘깎두기’가 의미 하듯이 여러 방면, 즉 학계와 문학계에 서, 또한 산악계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저작 활동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전공분야인 보철학과 치과 용어와 치과의사학과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것이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1976년 『치과보철기공학』, 1977년 『치과보철용어해설집』, 1980년 『치주과학용어해설집』, 1982년 『치과의학사전』, 1995년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및 부록 『서울치과의원지도』, 1997년 『MBC라디오 골든마우스 그리고 Face-Mask』, 1999년 『우리는 실험을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민을 했었다』.

2001년 3월 10일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 산책』를 도서출판 정상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462 쪽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고대, 중세, 근현대까지의 동서양의 치과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쓴 것이다. 2006년 9월 25일 『북한구강의학용어집』이 편저는 통일 시대에 대비한 선견지명인 출판이었다. 2007년 『서울대학교 치과보철학 동문회30년사』, 2009년 이영옥 저 『90에 쓴 이야기』 총괄편집 및 교정담당을 하여 은사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였다.

영한한(英韓漢) 『이 치의학사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집념의 40여 년, 대를 이은 꿈의 결과물이었다. 2014년 3월 31일, 72세 치과의사가 40대 아들 치과의사와 함께 치의학사전을 펴냈다. 2164페이지에 16만여 단어를 수록했다. 영어, 한국어, 한자로 단어를 표기했다. 치의학사전 앞에 부자의 성을 딴 ‘이(李)’를 붙여 책 제목을 정하였다.

1976년 2월 26일 『치과보철기공학』 편찬

1977년 8월 25일 『치과보철용어해설집』 공저

1980년 10월 25일 『치주과학용어해설집』 대한치주과학회편/공저

1982년 『치과의학사전』 편찬

199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사』 및 부록 『서울치과의원지도』 편찬

1997년 6월 9일 『MBC라디오 골든마우스 그리고 Face-Mask』 편찬

1999년 12월 25일 『우리는 신협을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민을 했었다』저

2001년 3월 10일 『치의학역사산책』저

2003년 1월 19일 『한국 근현대 치의학의 역사박물관』 편찬

2006년 9월 25일 『북한구강의학용어집』 편저

2007년 12월 2일 『서울대학교 치과보철학 동문회30년사』 편찬

2009년 4월 19일 이영옥 저 『90에 쓴 이야기』 총괄편집 및 교정담당

2014년 3월 31일 영한한(英韓漢) 『이 치의학사전』 편찬

### 3. 문학-수필가

문학분야는 수필가로 시작하였다. 20대 학창시절부터 생활 주변 또는 임상의 주변에서 느낀 일들을 정리한 1978년 수필집 『깍두기로 통하는 나』를 펴냄으로 수필가가 되었고, 현대문학 313(1981)호, 342(1983)호, 372(1986)호 추천 게재로 현대문학 문인주소록에 등재되었다.

1991년 5월 10일 중국치의학계 수필집 『북경, 연변 그리고 백두산』기행을 펴내었다. 1994년 등산수필 『깍두기의 설악산 식사당번』을 내기도 했다. 2002년 『이대로 저대로 제대로』을 출판하였다.

1998년 마티호른의 아름다움에 취해 거리를 걷던 중 책 한권이 눈에 확 들어왔다. 『History of the Matterhorn』이란 책이었다. 진열만 하고 판매하는 책이 아니었지만 이 박사는 주인을 줄라 결국 손에 넣었다. 책을 인상 깊게 읽은 그는 귀국해서 번역하여 2003년 『마티호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비트 P.트루퍼 지음. 이병태 옮김으로 출판하였다.

2012년 한라산은 대학 산악활동의 시발지였다. 추억어린 사진과 신혼여행 사진으로 『한라산 이

야기』를 고회를 맞이하여 책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2015년 『나는 사람이 좋다』을 출판하였다.

2004년 10월 22일 대한치과의사문인회(Korean Dentists Pen Club)창립하여 부회장이 되었다. 2007년 2월 16일 대한치과의사문인회 2대 회장을 하였고, 대한치과의사문인회 명예회장 이 되었다. 한국수필가협회 정회원,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정회원, 조병화시인 기념사업회 멋회원 이었다.

### 4. 산악, 산서인

이병태는 산과 산서에 깊은 애정을 가졌다. 중학생 시절부터 산에 가길 좋아했던 이 박사는 대학 입학 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산악부원으로 노란 양말에 군화로 밧을 내며 전국의 산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1975년 8월 11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YB 산악회, 설악산 칠형제바위 암벽등반 중 주정식군 조난사망. OB 산악회 충무 이병태, 설악산, 속초 현장에서 사태수습과 장례를 치뤘다.

1994년 6월 29일~7월 10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산악회 요세미티 엘캐피탄 등반대 대장 이병태는 로스 앤젤레스와 요세미티 국립공원 간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장지훈군과 재미한인산악회장 황영희가 사망하였을 때 사태수습과 장례를 치뤘다. 이 같은 일은 그의 친화성인 성격을 나타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998년 스위스에서 마티호른을 마주했을 때 이병태는 ‘나는 이뤘다’고 말씀하셨다. 어릴 적부터 엄지손가락만 치켜들면 마티호른이 떠오를 만큼 동경해 오던 산, 꿈꾸어 오던 산이었기 때문 이었다.

1997년~2000년 한국산서회장 역임하였다.

2005년 금강산사랑운동본부 공동대표 역임하였다.

1978년 수필집 『깍두기로 통하는 나』 저

1991년 5월 10일 중국치의학계 기행수필집 『북경, 연변 그리고 백두산』 저

1994년 6월 29일. 산악수필집 『설악산 식사당번』 저

2002년 9월 30일 『이대로 저대로 제대로』 편저

2003년 3월 27일 『마티호른 이야기』 비트 P.트루퍼 지음. 이병태 옮김

2012년 5월 1일 『이병태의 한라산 이야기』저

2015년 『나는 사람이 좋다』저

## 5. 출판

이병태의 애서는 남달랐다. 피에르 포샤르(Pierre Fauchard)의 『치과외과의사 또는 치아개론 (Le chirurgien dentiste, ou trait des dents)』의 구입 과정으로 프랑스 파리의 고서적상을 찾은 일화는 유명하다. 프랑스를 간다면 보통 사람은 관광을 할 때에 현 서적을 찾는 일은 드문 일이었고, 그 책을 찾았을 때의 기쁨의 표현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로서 남아 있다.

이병태는 학창시절 대학 강당에서 열리는 각 학회의 유인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대한치과교정학회 최초의 학술대회 팸플릿을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었다. 후학은 대한치과교정학회 최초의 학술대회의 날짜와 내용을 알 수 있어서 글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리 급하게 가시다니! 못다한 꿈, 치의학 박물관!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대를 이은 꿈의 결과가 기대된다.

1966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위원이 되어 치과계 출판물 발간에 노력하였다.

1968년 12월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지 제8권 제1호 첫 인쇄물 제작에 참여하였다.

1975년 6월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상임편집위원이 되었다.

1977년 1월 월간 『치과연구』를 창간하고, 계속 발간하여 치과계 출판에 공헌하였다.

1990년 2월 24일 한국에서가클럽 창립부회장 역임하였다.

## 6. 치과의사학 경력

이병태 학회장은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으로 2차에 걸쳐서 5년 동안 봉사하였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편찬위원장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편찬위원장을 지내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치과의사학을 교수하였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박물관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82년 12월 2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입회하여 34년 동안 활동하였다.

1984년 12월 7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총회에서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이 되었다.

1988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편찬위원장에 위촉되었다.

1989년 6월 13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1995년 3월 31일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 1995』를 편찬하였다.

1997년 2월 28일~2007년 9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편찬위원장에 위촉되었다.

1998년~2016년 대한치과의사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2003년 7월 15일~2016년 서울특별시치과의사학회 편찬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2006년 11월 1일 대한치과의사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편찬위원이 되었다.

2013년 6월 28일~2015년 3월 3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에 다시 추대되었다.

## 7. 대한치과의사학회 발전을 위하여

이병태 학회장은 치의학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며, 인접 학문의 참여가 필요하고, 중국과 일본의 치의학에 관한 정보와 학문적인 교류를 하며,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남북한이 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치의학의 역사 인식을 높이어 윤리와 철학, 그 예술성까지 관여되기를 희망하였다.

1984년 12월 31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5권 제1호 권두언에서 이병태 부회장은 역사가 자연스럽게 수집 정리될 때 그 진가는 더 있을 것이라 하였다.

1985년 12월 15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6권 제1호 발간사에서 이병태 부회장은 치과 역사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찰.정리.보고.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986년 12월 15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7권 제1호 발간사에서 이병태 부회장은 이한수 종신 명예회장의 저서 『한국치학사』는 치의학의 역사성과 시대성 정립한 책으로 위로와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1987년 11월 25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8권 제1호 발간사에서 이병태 부회장은 이한수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치과의학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기창덕의 한국치과의학사(상) 발간은 후학들의 치과의학사 연구에 도움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경축스럽고 다복한 1년이라고 하였다.

1988년 10월 25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9권 제1호 출간되면서 이병태 부회장은 치의학의 역사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남북한이 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1989년 12월 15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간되었다. 회장 이병태는 기록을 남기는 일은 중요하며, 정리하고 찾아야 할 명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였다.

1990년 6월 30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1권 제1호 발간되면서 이병태 회장은 1960년 12월 1일, 바로 대한치과의사학회지의 탄생일이다. 대한치과의사연구회지가 첫 이름이다. 이와 같이 이병태 회장은 학회지 발간 경과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원고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며, 이제는 인접한 여러 학문의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990년 12월 30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간사에서 이병태 회장은 중국구강의학

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구강의학사의 석학 주대성 박사와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또한 중국구강의학계와 학문적인 교류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1991년 6월 30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간사에서 이병태 회장은 시대도 너무나 변화하는 느낌이다. 세상과 같이 치과계도 변화한다. 변천하는 시대에, 남북통일을 앞두고 치과계는 치과계 나름대로 무언가 배려를 하여야 할 때이며 대한치과의사학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남북이 하나가 되기 전이라도 남북 치과의사들이 오고가며 학문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바라고 하였다.

1991년 12월 30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2권 제2호 발간사에서 이병태 회장은 남과 북이 화해를 하는 이때에 치과계에서 일어난 사건과 행사를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2권 제1호 권두언에서 이병태 회장은 대한치과의사 학회를 위해, 그리고 치과의사학, 치의학의 역사 인식을 높이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하였다.

2014년 12월 31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3권 제1호 권두언에서 이병태 회장은 치의학회의 역사 교육과정에 내재된 윤리와 철학, 예술성 그 지침서 저술에 관여하는 회원과 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하였다.

## 8. 치과의사학에 관한 논문

이병태의 치과의사학에 관한 논문은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고대의 치의학의 역사, 전문치과의사제도, 한국치과의사 회갑 · 고회기념 논문집, 한국치과의사단체의 역사, 중국 구강의학, 일본 치의학, 남북구강의학 용어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1983년『대한치과의사학회지』제4권 제1호에『우리나라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1)』

1884년 학회지 제5권 제1호에『우리나라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2)』

1985년 학회지 제6권 제1호에『우리나라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3)』

1986년 학회지 제7권 제1호에『우리나라 치과출판에 관한 연구(4)』

1987년 학회지 제8권 제1호에『배달(倍達)나라 환웅천왕(桓雄天王)시대의 치과의학에 관한 문헌고찰』

1988년 학회지 제9권 제1호에『단군조선시대의 치과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

1989년 학회지 제10권 제1호에 종설『고대실론(스리랑카)의 치과의학』

『단군조선(檀君朝鮮)의 단군8가(檀君八加)와 치과의학에 관한 문헌고찰』

1990년 학회지 제11권 제1호에『1990년 전문치과의사제도 공방』

1990년 학회지 제11권 제2호에『주대성 박사 심방』

1997년 학회지 제16권 제1호에『한국치과의사 회갑 · 고회기념 논문집 전시』

1998년 학회지 제17권 제1호에『한국치과의사단체의 역사 / 회사 간행물 지상전시』

1999년 학회지 제18권 제1호에『일본 치의학 간사(簡史)』

2000년 학회지 제19권 제1호에『중국 구강의학 사략(史略)』

2001년 학회지 제20권 제1호에『저경궁(儲慶宮)에 관하여』,

대답『치과의학 강좌에 관하여』이병태 · 김명기

2004년 학회지 제23권 제1호에『풍속발치(風俗拔齒)에 관하여』

『주대성의 풍속발치론』

2005년 학회지 제24권 제1호에『남북구강의학 용어에 관한 제언』

2008년 제27권 제1호에『경성치과대학 및 경성치과대학전문학교의 재정과 국유임야

대부 및 조림에 관한 연구』

2014년 학회지 제33권 제1호에 대담『이한수 박사와 나눈 이야기들』

## 9. 치과의사학에 관한 구연

이병태는 대한치과의사학회 학술집담회에서 보철학 발달사, 고대의 치의학의 역사, 중국 구강의학사, 중국 연변치과계 근황, 치과계몽 신문기사 분석, 한국치과의사단체의 역사, 한,중,일 치의학교류사, 뻬에르 포샤르에 관하여 등을 구연하였다.

1985년 4월 29일『고대 서구에서 보철학 발달사』

1987년 5월 15일『상고시대 치과의학 연구』

1987년 7월 15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이사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연자로 선정되었다.

1990년 9월 15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 공직치과의사회 합동학술대회에 라운드 테이블 강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1991년 6월 25일『중국 연변치과계 근황』

1991년 10월 29일『중국 구강의학사』

1997년 3월 2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이사회는 FDI에 수집논문 전시 부스를 요청하였다.

1998년 10월 20일『한국치과의사단체의 역사/회사 간행물에 대하여』

1999년 5월 18일『70년전 치과계몽 신문기사 분석』

1999년 11월 27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43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을『치과의학사, 21세기 한국치과의학의 좌표』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일본 치의학 발달



개관』의 연자는 이한수, 이병태였다.

2001년 5월 12일 『중국 의사학 사략』

2002년 3월 19일 『한, 중, 일 치의학교류사』

2003년 5월 20일 『뻬에르 포샤르에 관하여』

2004년 6월 25일 삼성의료원에서 특강으로 『한, 중, 일 치의학교류사』를 하였다.

2007년 3월 20일 『중국 치과의학사』

2009년 9월 15일 『북한치과진료』

## 10. 중국 북경의과대학 구강의학원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치의학 교류

1990년 6월 23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중국을 방문하여, 북경의과대학 구강의학원(원장 장진강, 국립치대)을 방문 양국 치의학 교류에 관해 합의하고, 처음으로 한국 치의학 현황을 소개할 수 있었다.

1990년 6월 26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하여, 연변의학원 구강학부 및 병원, 연변조선족자치주 제2인민병원 구강과, 일반 개원가를 둘러보고 제2인민병원 구강과와 일반 개원가에 대한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1997년 6월 6일 중국 지린성 제2인민병원 명예원장에 위촉되었다.

## 중국치과계 현황 보고

- 방문기간 : 1990년 6월 21일부터 1990년 7월 2일까지
- 방문목적
  1. 현재, 전혀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구강학에 관한 정보수집 및 학문교류 촉진
  2. 양국 치과계 상호관심사에 관한 사항 탐구
  3.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치과현황 파악
  4. 양국 치과의사, 학자의 접촉, 교류 추진
  5. 우리나라의 치과출판물 및 한국산 치과기재 전달
- 방문기관(인사)
  1. 북경치과 대학교 (상백기 부교장)
  2. 북경치과 대학교 구강의학원 (장진강 원장)
  3. 수도의학원 구강의학원 의사학연구실(주대성 박사)
  4. 연변의학원 의학계 (이기방 주임 · 부교수)

5. 연변의학원 부속의원(이기방 원장)

6. 연변의학원 의학계 치과학부(의학계 구강학과)(노광수 부교수)

7. 연변위생학교 부속의원 (리대림 원장)

8. 연변위생학교 부속의원 구강과 (리금자 구강의사)

9.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홍십자회 (김경연 부회장)

10.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김경연 부국장)

11. 최경악 개체치과진료소(외)

대한치과의사학회에서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출판물은 북경의과대학 도서관(北京醫科大學 圖書館)에 비치되어 있게 되었다.

- 전달한 출판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치의신보 (齒醫新報)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大韓齒科醫師協會誌)
- 월간치과연구 (月刊齒科研究)
-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師學會誌)
- 치과의학사전 (齒科醫學辭典)

- 기념품전달

- dental syringe, impression tray, mirror, handle, explorer 오성산업
- disposable needle (주)신흥
- diamond bur 세신정밀
- Lidocaine Hcl 광명약품, 유한

- 방문성과 및 결과

1. 중국 유일의 국립대학인 북경치과대학교 및 구강의학원 당국자들과 양국의 학술교류를 희망했고 1991년 5월 29일~31일 북경 1회 국제교정외과학회 (Beij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thodontics and Surgical Orthodontics)에 한국에서 많이 참여할 것을 제의하고 받아들였다.
2. 중국은 한국을, 한국은 중국을 상호 상대국의 치의학 / 구강학 이해를 시작하여, 효과적인 방문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치의학 및 개원의의 실태를 많이 파악하고 이해하였다.

4. 중국 의료정책 속의 치과 현황 파악에 발전적으로 접근하였다.
5. 중국구강의사 학자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1990년 10월 29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학술집담회에서는 『중국치과계 현황 1. 북경의과대학 구강의학원 2. 연변조선 자치주의 치과계 실태』가 소개되었다.

이병태 학회장은 중국에서 유일하고 최고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우수한 두뇌와 학자들이 모인 북경의과대학 구강의학원, 그리고 조선족 학교인 연변의학원 구강과 등의 치과계에 강연하였고, “북경의 의료제도와 구강과 현황을 추리하고 이해하는데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 기고 및 구연
  - 월간 치과연구 1990년 8월호부터 『중국치과기행』을 연재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90년 8월호에 『북경의과대학교 및 북경의과대학 구강의학원』 방문에 관한 화보 게재
  - (주) 신흥사보 가을호에 권두언에 『중국치과기행과 우리』 기고
  - 199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 공직치과의사회 '90종합 학술대학, 63 빌딩에서 round table에서 강연
  - 1990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과보철학 전공 동문회,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치과현황에 대하여』 강연
  - 1990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년학술대회, 『중국 치과 개업의(개체 치과 진료소)에 관하여』 강연

1991년 9월 2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학술대회 테이블 클리닉에 『중국 구강의학서(中國 口腔醫學書)의 소개』로 참가하였다.

중국의 치과(中國의 齒科), 치의학(齒醫學), 치과대학(齒科大學)은 어떠한가? 1990년 6월21일부터 7월 2일까지 대한치과의사학회(大韓齒科醫史學會 회장 이병태)는 북경의과대학 구강의학원(北京醫科大學 口腔醫學院), 연변의학원(延邊醫學院) 의학계구강과(醫學界口腔科), 연변위생학교(延邊衛生學校), 부속의료원 구강과(附屬醫療院 口腔科) 및 개체진료소(個體診療所 - 개인치과의원)를 초청 방문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중국치과학계(中國齒科學界)의 초청으로 상호의견 교환이 공식적으로 첫 번이었다. 방문과 인사로 만족하려 하였으나 우리를 소개하는 중국과의 우호적이고 성의 있는 정보제공에 감사할 수 있었다. 이보다 먼저 1990년 5월말 대한치과교정학회(大

韓齒科矯正學會)에서는 북경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중국과의 치의학 교류를 시작한 바 있었다.

## 11. 대북 치과진료 및 남북교류

2001년 7월 11일 남북치의학교류위원회 창립하여 공동대표가 되었고, 2003년에는 남북치의학 교류협회로 발족시켰다.

2005년 3월 23일 북측 금강산 국제관광총회사 방종삼 사장과 남측 이병태 공동대표 온정인민 병원에 기술협력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2005년 9월 27일 북측 고성군 내, 금강산온정인민병원 치과진료소 (유닛체어2, 구내X-선, 컴프레서 2대)개소, 진료 개시하였다.

2006년 9월 27일 금강산온정인민병원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북한구강의학용어집』 출판기념회(금강산 외금강호텔)를 하였다.

2008년 11월 22일 평양 중앙적십자병원 치과에 유닛 1대(요시다 제) 기사 파견 설치하였다.

2008년 8월 31일~9월 1일 금강산온정인민병원 치과진료소에 제1, 제2 치과기공실(보철실) 설치 완료하였다.

2009년 2월 3일 금강산병원(현대아산)에 치과진료실 개소, 유닛체어 설치하였다.

2009년 12월 4일~5일 제 63차 방북 진료하였다.

방북진료 63차 및 기타 5차 방북, 총 68차 방북하였다.

2010년 3월 5일 금강산병원(현대아산)치과진료소 시설 지원 차 방북, 총 69차 방북하였다.

## 12. 사회활동

활발한 사랑과 봉사의 사회활동으로 교통방송과 광고 분야까지 진출하였다.

1983년 1월 3일 MBC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병태입니다’ 진행 / MC

1984년 4월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삼성세이코 모델까지 하였다.

1989년 7월 1일 KBS 라디오서울 ‘가로수를 누비며’ 진행 / MC

1988년 12월 5일 교통친절봉사단 상임고문 역임하였다.

## 13. 수상 경력

치과의사란 말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다른 직업에 비해 넓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방면, 즉 치의

학계와 문학계에서, 또한 산악계에서 활동하여, 평생을 사랑과 봉사, 열정으로 살아온 그는 아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즐거운 추억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렇게 하여 여러 부분에서 수상할 수 있었다. 치과의료문화상, 교통봉사 특별상, 공로대상, 산악문화상, 의료봉사상, 자랑스러운 동문상, 치과인 동문상 등이 그것이었다.

- 1987년 10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문화상
- 1991년 12월 9일 서울신문사-교통부, 교통봉사 특별상
- 200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제8회 공로대상
- 2000년 12월 2일 한국대학산악연맹, 산악문화상 한국산서회 회장
- 2007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제5회 의료봉사상 남북치의학교류협회 회장 (단체)
- 2007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과보철학동문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 2010년 2월 23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치과인 동문상

부족하고 재주가 없어 이병태 박사의 완전한 삶을 표현할 수 없었다.

# 추도사

- 1. 남북치의학교류협회 사무총장 김 선
- 2. 대한치과의사학회 고문 변 영 남
- 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동문회 회장 백 승 진

이병태 선생님

슬픔과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저희들은 선생님과 이별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평생 해오신 일들이 너무 큰 자리이기에 너무도 당황스럽고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수많은 업적 중 역사를 기록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셨던 많은 저서와 멋진 사진,  
박물관 등 열정적 노력은 모든 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길림성 연변 인민병원 명예병원장으로서 많은 치의학 교류를 하셨으며,  
영한한 이 치의학 사전, 북한 구강의학 용어집, 다수의 수필집 등의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2001년 남북 치의학 교류협회를 만드시고 2000여명의 북한주민을 70여차례 2주 마다 방문하시  
어 때로는 한 아버지로서 때로는 한 치과의사로서 열정을 다하신 공로는 온정인민병원 주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사셔서 다시 한 번 북한 주민들을 치료하셨어야 하는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하시고  
이제는 편안한 안식을 누리러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펑 깃털 달린 모자, 에텔바이스 그려진 등산복, 산을 좋아하시고 사진과 글로서  
저희를 감동시키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금강산, 온정인민병원, 그곳에서의 추억들이 아직도 엇그제 같은데 선생님은 저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가셨습니다.

좋은 곳에 가시어 그곳에서도 저희 후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평화  
를 주소서.

큰 별의 뒷자리를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남북 치의학 교류협회 회원 일동 올림  
사무총장 김 선 낭독

빛이 되어 가셨나요

이병태 선배님을 떠나보내면서

지난 토요일 폭염이 쏟아지던 날, 무엇이 그리 바빠 책상 정리도 못하신 채 빛 따라 홀연히 떠나셨  
나요.

비보에 접한 저희들은 어안이 병병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듯 허탈감에 빠져 넋을 잃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사실이 아니길 바랬습니 다. 치과 인문계의 큰 기둥이 빠진 슬픈 날이었습  
니다. 선배님이 치과계에 남긴 업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남북교류협력, 치의학용어사전 및  
치과의사 관련저서, 회사 평찬등 많은 공을 남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를 전까지 협회사 편찬위원회 모임에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참석치 못하겠다고  
전화하시면서 병석에 누워계신 어느 선배님 걱정까지 하시며 정을 나누지 않았습니 까! 열정과  
정이 많으신 선배님 다시 뵈 수 없다니 이 어인일입니 까!

이병태 선배님

그 아끼던 몽블랑 만년필로 글 쓰던 모습도 빨간 넥타이에 모자 쓴 모습도 이제 뵈을 수 없게 되었  
으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프랑스 여행중 현책방에서 구입하셨다던 애지중지하던 피에르포샤드 영인본을 어찌 잊고 가십니 까!  
선배님

못이룬 치과박물관의 꿈이 뒤돌아보이셨겠지요. 이제 모든 것 다 산자의 몫으로 남기고 홀연히  
떠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니 하느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이순간 저희들이 해드  
릴 것은 기도뿐입니다.

산이와 죽은이의 통공을 받으며 선배님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나라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선배님과 함께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편히 가십시오

대한치과의사학회 고문  
변 영 남



보고싶은 병태형님께

병태형님! 어찌 저와의 40년 인연을 이리도 쉽게 끊으시려 하셨습니까? 매정하시게요. 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선, 후배로 이어진 질긴 인연을 말입니다.

병태형님! 웬 정렬에 모교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에까지 참석을 하시면서 때 이른 작별을 고하려 하셨나요? 그것도 저도 3년이나 다닌적이 있는 그 종암초등학교라니, 도대체 형님과 저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기에 이리도 얹혀 있었던가요?

병태형님! 지금도 제가 형님을 맨처음 만나 뵈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른 선배님들의 깨끗했던 치과와는 대조적으로 형님의 광화문 치과는 너무 정신없고 너저분하여 마치 인쇄소에 온 것 같았고, 처음 본 형님의 인상은 문과에 가야할 분이 적성에 안 맞는 이과에 오셔 치과에는 관심이 없고 글쓰는 일만 좋아하시는 기인 같았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용어를 써가며 정신없이 말씀을 이어 나가시는 엉뚱한 모습에 약간 정신이 이상한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형님의 독특하고 색다른 모습을 장장 40년이나 계속 보게 되었지만 그런 형님이시었기에 남들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도 없는 너무 많은 업적을 이룩하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2014년의 “올해의 치과인상”의 수상이 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는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병태형님! 깍두기 형님!

하필 별명 중에 “깍두기”라니요?

요새 후배들은 일진 출신으로 잘못 오해하기 딱 좋은 별명인데 그런 카리스마는 찾을 수 없고, 입가의 살인미소, 어린아이 같은 언행, 그리고 그 모자 쓴 모습은 마치 어린왕자 같으신데 말이죠. 그런 모습 정말 오래 볼 줄 알았는데 이 아쉬움을 어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태형님!

과거 병태형님이 역임하셨던 보철학 대학원 동문회장의 자격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형님에게 이별을 고하게 될 줄이야, 형님과의 질긴 인연의 끈을 잠시 내려 놓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형님 너무하십니다.

병태형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아쉬움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그 정도로도 정말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마무리 못하신

일들은 이 못난 후배에게 남겨주신 숙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형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랑도 좀 하고, 또한 그동안 그곳에서 또 어떤일을 벌리셨을까 한 번 또 깜짝 놀라고 싶군요

그동안의 무궁한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 편히 가십시오.

병태형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영원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깍두기 형님!”

2016년 7월 12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동문회 회장 백 승 진

# 치과의사는 누구인가? 치의학이란 무엇인가?

신 재 의  
Shin, Jae-Ui

## 치과의사는 누구인가? 치의학이란 무엇인가?

치의학박사/문학박사/대한치과의사학회 고문  
신 재 의

### 치과의사는 누구인가?

인간의 질병은 개인의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비사회적 행위에 대한 형벌이었고, 의사는 샤만(Shaman)이나 주술사(Medicine man)였다. 치과의사는 의사와 분리되지 않았다. 치통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인간은 치통에 본능적인 반응을 하였다. 인간은 치통에서 해방하려고 이를 뽑거나, 반대 자극이나 약물을 사용했다. 경험으로 약초 제조와 처방을 하였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치과치료는 치통으로부터 인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이러한 일은 사랑이나 자비(慈悲)나 인(仁)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하여 치과의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완전한 복지를 이루게 하는 창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의 치과의사 이름은 고대 이집트에서 헤지-레(Hesy-Re)라는 이름이 왕의 기록책임자, 왕관의 수호자 등 13개의 공식 직함과 함께 초상화가 수록된 5개의 나무 판이 발견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 치의학은 무엇인가?

치 의학을 알기 전에 우선 의학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겠다. 치의학이 의학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그리스의학을 마술과 종교에서 분리하여 합

리적인 경험의학을 확립하고 의학지식을 집대성하였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질병을 진단할 때 증상뿐 아니라 원인 탐구하여 지식과 경험으로 예후와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체액설을 세웠다.

동양에서는 은(殷)대(1122~770 B.C) 갑골문자에서 질구(疾口), 질설(疾舌), 질언(疾言), 질치(疾齒), 치우(齒齬) 같은 구강질환의 명칭이 보인다. 천인상응설(天人相應說)과 음양오행학설(陰陽五行學說)을 근간 학설로 하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은 한대(漢代) 이전까지의 의학 이론을 망라한 책이다. 한의학의 기본이론과 예방, 질병의 변화, 진단, 치료, 양생 등에 대한 원칙과 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양의 중세치의학은 발전하였고, 그 백미는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이다.

서양의 중세와 이슬람 치과의술은 종교적인 색채로 얼룩졌고, 신분주의에서 인본주의의 출현은 필연이었다는 역사이다. 즉 르네상스(Renaissance)은 재생(rebirth)의 의미를 뛰어넘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어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고전(중세가 아닌) 학문의 지속적인 재발견과 확산과 고전(중세가 아닌) 학문의 새로운 활용으로 세속적인 르네상스 문화와 휴머니즘(humanism)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계몽주의는 우주는 이해될 수 있고, 초자연적인 힘보다는 자연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다. '과학적 방법'으로 모든 연구 분야의 근본적인 해답을 할 수 있다. 인류는 거의 무한정하게 진보할 수 있게 '교육'될 수 있다.

르네상스는 과학화를 가져왔고, 과학혁명은 사회 환경을 배경으로 인간의 계발과 과학을 응용하며 문제에 합리적으로 사회를 개선하여 정치적으로 프랑스혁명과 미국의 독립운동을 촉발시켰고, 의학적으로는 과학적 의학을 발전시키며, 치의학의 독립을 가져왔다. 계몽사상을 가진 의사들은 증상이나 유행병의 원인을 인간의 조직이나 장기의 이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감히 알려고 하라”고 하여 “인간의 지위를 회복” 되고 “우주를 둘러싼 신비주의는 파괴” 되었다. 그리하여 지리상 발견과 천동설과 지동설이 확립되었다. 데카르트(Rene Descartes)는 “명석 판명하게 인식되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결코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이원론을 주장하여 “정신과 물질”로 구분하였으나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한계가 없는 신의 영역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치의학은 과학혁명을 통한 자연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전문지식을 형성하면서 근대치 의학을 독립시켰다. 전문지식은 임상에서 해부학자 뿐만 아니라 발치사(拔齒士)와 장인(匠人)의 기술도 첨가되어 새로운 분야를 형성했다.

1723년 프랑스의 피에르 포샤르(Pierre Fauchard)가 치과외과의사 또는 치아개론(Le chirurgien dentiste, ou trait des dents)를 저술하므로 근대치의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영국의 존 헌터(John Hunter)는 1771년 『사람치아의 자연사』, 1778년 『치아의 질환에 관한 실제』라는 책을 쓰고, 영국의 치의학 확립에 공헌하게 되었다.

“미국치의학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는가?”의 해답은 현대치의학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것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Education)이다. 1840년 세계 최초로 치과대학을 설립하여 치과가 외과로부터 독립하게 하였다. 둘째, 협회(Organization)의 활성화이다. 미국 치과의사협회(ADA)의 힘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셋째, 학술지의 발행(Journal Literature)이다. 1939년 미국치과의학잡지(American Journal of Dental Science AJDS) 발행되었다.

한국의 근대치의학은 전통의학의 한 부분으로 치과질환 치료에서 서양의 근대치의학이 중국, 미국, 일본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문헌적인 지식, 미국에서 기독교 선교사적인 도입,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관리 차원의 근대치의학 도입은 그 한계가 있었다.

현대치의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전문의(Specialist)제도와 마취학과 영상의학, 재료학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치과질환의 완전한 치유(Healing)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과의사는 치통으로부터 인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태어난 직업이었다. 그는 이 일을 사랑이나 자비나 어진 마음으로 행하였다. 치의학은 자연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전문지식을 형성하여 그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했다. 현대치의학은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하여 치의학의 앞날은 인간의 보다 완전한 복지를 이루게 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교신저자〉

- 신 재 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71-16
- Tel. 02-3679-1084, Email: allens@kornet.net

이름과 제품 속에 숨은  
치의학 역사 이야기

권 훈  
Kweon, Hoon

## 이름과 제품 속에 숨은 치의학 역사 이야기

미래아동치과 원장 권 훈

### 시작하는 글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The man with a toothache thinks everyone happy whose teeth are sound.”라고 말하면서 치아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건강을 위해서 구강위생은 노래가사 후렴부처럼 항상 입에서 되뇌어야 할 일상이다. 어느 집이나 욕실에는 다양한 구강위생 용품이 있는데 이러한 생필품에도 치의학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 중인 칫솔의 모체는 감방에 갇혀 있던 죄수의 취미 생활에서 탄생하였고, 치약과 치실의 발명은 아직 약관의 나이에 불과한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충치 예방의 일등공신인 불소는 고체로 분리되어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외에도 칫솔질 방법과 구강 청결제(리스테린)의 네이밍은 의학적 또는 치의학적으로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이 있다.

일상 속 물건인 칫솔, 치약, 치실 등에 녹아 있는 역사 이야기를 알게 됨으로써 구강 위생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고에서 필자의 목적이다. 아울러 치의학 역사 이야기는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고 치과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마음이다.

### 1. Fones법

미국 코네티컷 주의 Bridgeport에서 개원중인 치과의사 알프레도 폰즈(Alfred Fones, 1869~1938)는 치위생사(Dental Hygienist) 직종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밀러의 화학세균설을 신봉한 폰즈는 교육을 받은 여성이 치과에서 예방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폰즈는 1906년 사촌 동생인 Irene E. Newman에게 칫솔질 방법과 구강질환의 예방법을 가르쳤고, 역사는 그녀를 최초의 치과위생사로 기록하고 있다<sup>1,2)</sup>.

폰즈는 어린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칫솔질 방법인 폰즈법을 고안하였다. 입안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이를 닦는 방법으로 회전법 또는 모원법이라고 한다. 폰즈의 사촌 여동생 Newman은 치과에 내원하는 아이들에게 이 방법을 교육하는데 전념하였다. 그리고 폰즈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검진 날짜도 잡아주었는데 이것이 지금 치과에서 시행하는 리콜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자 폰즈는 Bridgeport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로 확대 시행하였다.

1913년에는 Bridgeport에 치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Fones Clinic이 개설되었고 1914년에 27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브리지포트 공립학교에 치위생사로 고용되었다. 1916년 폰즈는 클리닉을 폐쇄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치위생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연하였고 그 결과 많은 치위생과가 개설되었고, 그는 Father of Dental Hygiene으로 칭송되고 있다(그림1).

1949년 University of Bridgeport에 치위생과가 다시 개설되었고 2013년에는 치위생의 역사가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브릿지포트 대학을 통일교 재단에서 인수하였고 충남 아산(牙山)에 있는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는 브릿지포트 대학과 3+1 국제교류를 통하여 미국 치위생사 면허 및 대학 공동 학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1 : 미국 코네티컷 주 Bridgeport 대학 치위생과 진료실에 있는 폰즈 유물 전시. 치위생학의 아버지로 칭송되고 있는 치과의사 Alfred Fones가 'Dental Hygienist'라는 용어를 만들어 새로운 직업을 설명하였다. 히기예이아(Hygeia)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강을 돌보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여신이다. 아마도 폰즈는 새로운 말을 만들 때 히기예이아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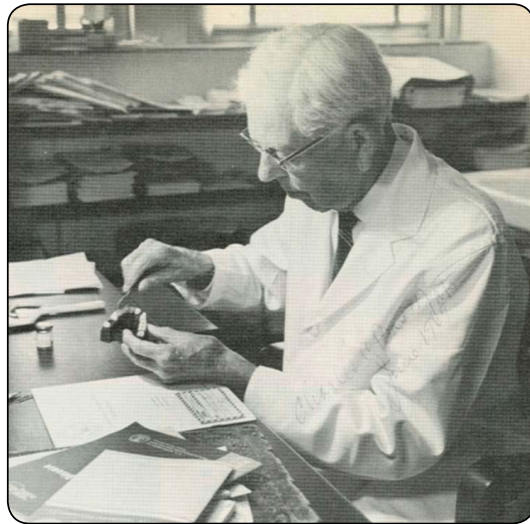


그림2 : 예방치학의 아버지 의사 Charles Bass는 다음의 문구를 강조하였다. You must clean your teeth right with the right kind of both toothbrush and dental floss every night before retiring.

은 '구강위생의 아버지'(Parmly)와 '예방치학의 아버지(Bass)'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바스법을 고안한 사람은 치과 의사가 아니고 1899년 뉴올리온즈 Tulane Medical School을 졸업한 의사였다<sup>4)</sup>. 바스는 1922년 Tulane 의과대학 학장이 된 후 정년까지 18년 동안 열대의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교직을 퇴임한 후에는 치주병 연구에 전념하여 71세부터 94세까지 치의학에 관한 논문을 32개나 발표하였다. 대부분 치의학과 무관한 저널에 게재되어 그의 연구를 아는 치과 의사들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바스가 치과계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오랫동안 불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바스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완벽한 칫솔질을 강조하였는데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사용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바스는 70세에 29개의 치아를 유지하여 바스법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100세까지 장수하여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치아가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sup>5)</sup>.

바스는 자신이 개발한 칫솔과 치실은 Bass법을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치과 의사에게만 공급하였는데 1962년에 판매된 가격은 성인용 15\$, 소아용 12\$이었다. 그가 특히 더욱 존경스러운 점은 칫솔과 치실 판매로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도 얻으려 하지 않았고 오로지 Bass법을 전파하기 위해서만 시간과 돈을 투자하였다. 바스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Parmly도 바스와 궤를 같이 하였다.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5대)의 치과 주치의를 맡을 정도로 유명한 Parmly는 그의 재정적 성공을

## 2. Bass법

재즈의 고향으로 유명한 뉴올리언스는 치의학적으로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이다. 뉴올리언스에 정착한 치과 의사 Levi Spear Parmly(1790~1859)가 1819년 지금의 치실을 처음으로 발명하였고, 뉴올리언스에 있는 툴레인 의과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한 의사 Charles Bass(1875~1975)는 일상의 행복과 치아 건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노년에 열정적으로 하여 칫솔질 방법인 '바스법'을 개발하였다(그림 2). 뉴올리언스의 미시시피 강물이 흘러흘러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Parmly의 이론은 세월이 흘러 Bass가 바스법으로 완결하였다<sup>3)</sup>. 뉴올리언스와 관련이 깊은 두 사람은

모두 어린이들에게 무료 치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바스는 연구실 입구에 "A clean tooth does not decay"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白壽(백수)를 넘어서까지 연구를 하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바스가 사망한 후 바로 바스의 가족들은 모든 특허권을 John O. Butler Company에 판매하였다. 그가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바스의 칫솔과 치실이 상업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떠났지만 미시시피 치과대학에 그의 초상화와 Bass Memorial Hall이 있고 바스의 가족이 기증한 몇 가지 유품도 있다<sup>5)</sup>.

## 3. Butler®(Sunstar)

치주과 의사 John O. Butler는 두 줄모 칫솔(2 row, 12 tuft)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1923년에 John O. Butler Company를 설립하였다. 이 시절에는 칫솔이 외형에만 치중되어 고안되었는데, Bulter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최후방 치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작은 헤드를 갖는 칫솔을 제작하였다. 그의 회사는 칫솔과 치실 등 다양한 구강위생 용품을 'Bulter'와 'GUM'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여 성공을 거두었고(그림 3), 경쟁 회사들도 비슷한 유형의 칫솔을 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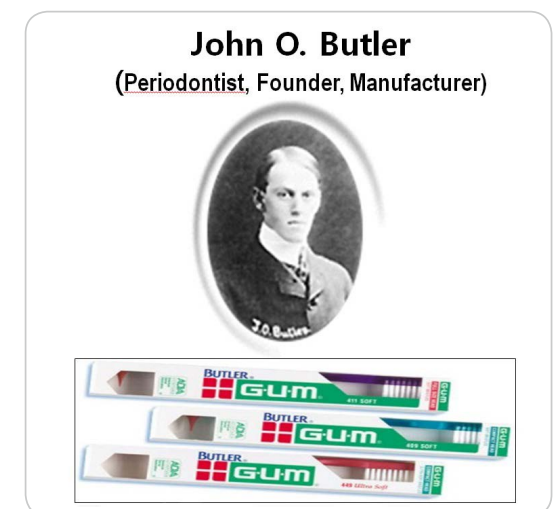


그림3 : 치주과 의사 John Butler는 항상 완벽함과 혁신을 실천하면서 구강위생을 위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

버틀러는 1949년 회사를 투자회사에 매각하였고, 그 후 회사는 더욱 사세가 확장되어 50여 개국에 지점을 가질 정도로 성공한 회사가 되었다<sup>6)</sup>. 1975년에는 구강 청결도와 치과질환의 상관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개발된 Bass의 칫솔과 치실 특허권을 John O. Butler Company가 인수하였다. 그 결과 의사 Bass와 치과 의사 Bulter 두 사람의 예방치과 철학이 깃든 새로운 제품이 제조되었다.

John O. Butler Company는 1988년 일본 건강관련 제품 회사인 SUNSTAR에 인수되었고 지금도 Butler와 GUM 브랜드가 유지되고 있다. 치과 의사 버틀러가 최초로 개발한 두 줄모 칫솔은 60여년이 흐른 후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일본 와타나베 교수가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갖는 칫솔모가 2 row 6 tuft로 배열된 새로운 칫솔이 탄생하였다. 와타나베(Watanabe)법은 칫솔이 잇몸에서 치



그림4 : 프랑스 화학자 앙리 무아상은 전기분해 원리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원소 상태의 불소를 분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덕택으로 불소는 인류의 충치 예방에 공헌하고 있다.

아 쪽으로 쓸어내리며 칫솔모가 치아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치간 사이를 깨끗이 닦아주고 잇몸도 마사지 하면서 치실 효과를 볼 수 있는 칫솔법이다.

#### 4. Fluoride

치과에서는 불소도포, 가정에서는 불소치약, 불소는 이제 치과와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있다. 하지만 이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불소를 단독으로 분리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모두 실패했다.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 중 희생을 당하였는지 불소 순교자(Fluorine martyrs)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다<sup>7)</sup>.

불소 분리가 힘든 이유는 불소의 뜨거운 반응성 때문이었는데 헬륨과 네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응을 하니 불소의 사교력은 대단하다. 어떤 것과 한번 결합을 이루면 안정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Fluoroapatite란 용어가 결코 이론뿐이지는 않다. 지금처럼 우리가 불소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프랑스의 과학자 앙리 모아상(Henri Moissan, 1852~1907)의 덕택이다(그림 4). 모아상은 전기분해를 이용하여 불소 분리를 성공함으로써 프랑스 최초로 1906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40 km 떨어진 도시 모(Meaux)에 있는 고등학교(Lycée Henri Moissan)에 앙리 모아상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 5. LISTERINE®(Johnson and Johnson)

구강청결제 리스테린(Listerine)의 네이밍은 현대 외과학의 아버지로 칭송되는 영국의 외과 의사 Joseph Lister(1827~1912) 이름에서 모티브를 따왔다<sup>1)</sup>. 의사 이름 Lister와 동사 Rinse를 축약하여 지금의 Listerine이 탄생하였다(그림5). 리스터는 수술 환자들의 상처에 석탄산(페놀) 분무제를 사용하여 패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무균 수술법을 정립하였다. 그가 주장한 방법은 이전 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고 많은 의사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

미국 의사 Joseph Lawrence는 1879년 살균 효과를 갖는 황색 소독액을 개발하여 'Listerine'이라고 명명하였다. 처음에 제조된 리스테린은 상처 및 찰과상 세척제, 비듬과 무좀 해독제와 벌레 물린 곳에 통증 완화제로 사용되었다<sup>8)</sup>. 약사 Jordan Lambert는 로렌스로부터 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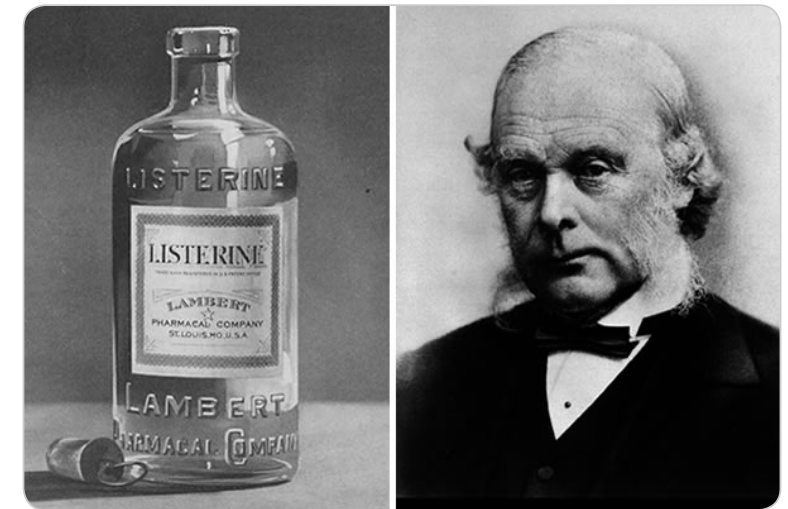


그림5 : 현대 외과의 아버지 의사 Sir Joseph Lister는 'antiseptic surgery' 개념을 도입하여 수술의 성공률을 높였다. 그의 이름을 빌려 구강청결제 리스테린이 출시되었다.

테린 조성 사용을 허락받아 1895년 구강 소독액 리스테린을 제조 판매하였다. 20세기 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었던 구취(Halitosiis) 제거에 리스테린이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면서 구강위생 용품에 'mouthwash'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구취 캠페인 마케팅 전략으로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던 리스테린은 1990년대 중반 새로운 경쟁 제품을 만나면서 리스테린 대중화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사연은 이렇다<sup>1)</sup>. 경쟁 업체는 로지 오도넬(Rosie O'Donnell)이 미국에서 가장 키스를 적게 할 것 같은 방송인이라고 지목하였고 그 회사의 구강청결제가 꼭 필요하다는 자극적인 광고를 하였다. 이에 화난 그녀는 리스테린과 손잡고 본인이 진행 중인 쇼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게스트와 키스를 하면 한 명당 1000달러를 어린이 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리스테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고 기부금 총액이 오십만 달러를 상회했다고 한다.

#### 6. Dental Floss : Johnson & Johnson

치실의 기원을 찾아가면 선사시대까지 올라간다. 그 시대로 추정되는 유골의 치아에서 치실이 사용되었던 자국을 근거로 들며 학자들은 설명하였다. 얼마나 단단한 치실이었으면 치아에도 흔적이 남았을까? 그때도 치아사이에 낀 음식물 제거에는 실이 답이었나 보다. 어쩌면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가 목적에 맞는 도구를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치실은 미국 치과 의사 Levi Spear Parmly(1790~1859)가 발명한 것으





그림 6 : 구강 위생의 사도(apostle) Levi Spear(1790-1859).



그림 7 : 치실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 회사 Johnson and Johnson은 세계 최고의 의료용 봉합사를 만드는 업체였다. 바로 그 의료용 봉합사로 치실이 제작되었다.

로 여겨진다(그림6). 그는 1819년 flossing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명주실을 치실로 사용하였다. 매일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시절 구강위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38)</sup>. 치실의 첫 번째 특허는 1874년 발표되었고 Codman & Shurtleff에서 1882년 unwaxed 치실이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미국의 종합제약업체인 Johnson & Johnson이 1898년 치실을 생산하면서 비로소 대중화가 이루어졌는데, 재료는 의료용 봉합사로 만들어졌다(그림7). 이러한 배경에는 흥미로운 존슨앤드존슨의 내력과 연관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평범한 의료용 봉대 제조업자인 Robert Wood Johnson은 1876년 멸균 수술의 개념을 주창하는 외과의사 Joseph Lister의 강의를 감명 깊게 들은 후 멸균 수술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887년 멸균용 봉합사를 세계에서 최초로 대량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의료계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엄청난 봉합사 재고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 10여년 후 멸균용 봉합사는 치실로 변신되어 치과계에 탄생되었다. 소독제가 듬뿍 적혀진 치실도 개발되어 'Lister Dental Floss'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기도 하였다.

## 7. Toothbrush : Wisdom

칫솔의 시초는 기원전 3500~3000년 무렵인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 시대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이때 칫솔은 나무 잔가지를 헤어지게 해서 만든 'Siwaks'이었다<sup>10)</sup>. 기원전 1600년경 중국인들은 섬유질이 많은 나무의 끝부분을 씹어 'chewstick'을 만들어 칫솔질을 했다고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인들이 치약을 손가락에 묻혀 칫솔질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세계 최초의 칫솔은 15세기 중국에서 발명되었는데 돼지 목에 있는 털을 동물 뼈 또는 대나무에 부착하여 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칫솔의 모체는 1780년 영국인 William Addis(1734~1808)가 제작하였다<sup>11)</sup>. 아디스는 1770년 폭동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는데, 감옥에서 이를 닦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처음에는 형짚에 검댕과 소금을 묻혀서 이를 닦다가, 다음에는 조각된 소뿔에 구멍을 뚫고 말 털을 고정하여 칫솔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그림8).



그림 8 : 영국의 문구 판매업자였던 William Addis가 고안하여 1780년대에 제작된 bone toothbrush

출옥한 아디스는 칫솔을 제조 및 판매하여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고 사업을 큰 아들 윌리엄에 물려주어 1996년까지 가업이 유지되었다. 현재는 'Wisdom'이라는 제품명으로 영국에서 매년 칠천만개의 칫솔이 생산되고 있다(그림9).



그림 9 : 영국에서 현재 시판중인 Wisdom 칫솔

## 8. Toothpaste : Colgate

치약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기원전 5000년경에 사용한 것이었고 실리카 파우더, 납, 꿀이 혼합되어 치약을 제조한 것이라고 파피루스(Papyrus)에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칫솔보다 치약이 먼저 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칫솔질 하는데 있어서 치약과 칫솔이 기여하는 정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칫솔질은 칫솔의 기계적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치약은 단지 부기능만 할뿐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관심은 치약에만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 계몽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림10 : Colgate-Palmolive Co에서 제조된 분말 형태의 치약



그림11 : 크림 형태의 치약을 담을 수 있는 병(Jar). 덮개에 17세기 치과 진료 모습이 그려져 있다.

치약(toothpaste)의 또 다른 용어로 dentifrice가 있다(참1). 이것은 라틴어 Dentes Fricare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Denti-는 치아를 frice는 rub을 뜻한다. 즉 치약의 본래 목적은 치아를 잘 문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약은 수천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었다. 초창기에는 분말로 제조되어 판매되었고(그림10)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적인 치약이 개발되었다.

현재 사용 중인 크림 형태의 치약은 1850년 Washington Sheffield(1827~1897)가 최초로 발명하였고<sup>12)</sup>, 1873년에는 Colgate에서 치약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치약이 병(jar)에 담겨 있어 칫솔을 병에 넣어야하는 위생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그림11). 그러나 Washington Sheffield의 아들인 치과 의사 Lucius Sheffield(1854~1901)가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는 1878년 2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할 때 화가가 튜브에 담긴 물감을 파레트에 짜는 것을 보면서 해결책을 찾았다. 치과 의사 Sheffield가 치약을 만들었던 작은 실험실은 현재 미국 코네티컷 주 뉴런던에 있는 Sheffield Pharmaceuticals로 성장하였다. 1896년부터 콜게이트는 Sheffield 치약처럼 금속 튜브에 치약을 담아 시판하였다.

뉴튼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것처럼 튜브형 치약도 비슷한 이치로 탄생했다. 화가의 물감이 치과 의사가 만든 치약을 더욱 발전시켰듯이 예술과 치의학은 공존의 관계이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필자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환자의 구강은 캔버스, 치과 의사는 화가, 내가 근무하는 치과는 화실이다. 어려운 고난과 힘든 역경을 이겨내며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키는 화가처럼 치과 의사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싶다.



그림12 : 일본 동경 긴자 거리에 있는 구강위생 용품점 Megadent

#### 맺는 글

진료실에서 건강한 치아를 위해 칫솔과 치약을 추천해달라는 난처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럴 때 마다 우물쭈물 얼버무리며 잘 모르겠다든 답변만 하였다. 실제로 확신 있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을뿐더러 내 자신이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지나는 치의학 역사를 살펴보면 치과 의사들은 구강 위생용품의 개발과 연구에 매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00년대에는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직접 치약을 조제하여 병이나 그릇에 담아 직접 환자에게 나누어 주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필자는 올 봄 학회 참석차 일본 동경에 갔다 두 곳을 방문한 후 구강 위생용품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장소는 일본에서 예방치과로 정평이 난 고륜치과(Takanawa dental office)이다. 이 치과는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구강 위생용품을 처방하고 예방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지금까지 '판매'로만 생각했었는데 '처방'으로 생각을 바꾸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보인다. 나머지 한 곳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구강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가게이다(그림 12). 점포 규모는 두 세평 남짓으로 작았지만 1000여종의 다양한 용품들이 판매중이고 유럽에도 7개의 점포가 있다는 사실을 매장에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시판중인 구강 위생용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한 제품을 환자에게 소개하는 것은 누구의 책무일까?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유아 때 몸에 밴 칫솔질 습관이 평생 구강 건강을 좌우한다. 일상적인 습관과는 달리 칫솔질은 연령에 따라 다른 방법이 추천된다. 칫솔질을 걸음마처럼 배우기 시작하는 유아기에는 폰즈법(Fones), 백세 시대를 바라보는 노년기에는 바스법(Bass)을 익혀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앞으로 개원 치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환자의 치료가 아닐 것이다. 환자의 편에서 구강 위생용품을 선택해주고, 환자의 옆에서 구강 위생을 신경을 써주는 치과 생각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벅차다.

### 참고문헌

1. Don Dible : The dental patient's little book of history, humor, and trivia, DMD house, 2006
2. 권 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미국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3
3. Sanoudos M, Christen AG : Levi Spear Parmly: the apostle of dental hygiene, J Hist Dent 1999;47:3-6
4. Arden G, Christen : Charles C. Bass, M.D.—1875-1975: That Cantankerous Genius of Preventive Dentistry, Bulleti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82;30:8-18
5. Arden G, Christen : In Search of C. C. Bass, MD: Further Insights Into the Life of A Preventive Dentistry Pioneer, Bulleti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85;33:18-26
6. [https://en.wikipedia.org/wiki/John\\_O.\\_Butler](https://en.wikipedia.org/wiki/John_O._Butler)
7. 권 훈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34권 제1호, 2015
8. <http://www.kilmerhouse.com/>
9. Chernin D, Shkfar G. : Levi Spear Parmly: father of dental hygiene and children's dentistry in America, J Hist Dent 2003;51:15-8
10. 기창덕 : 증보 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
11. [https://en.wikipedia.org/wiki/William\\_Addis\\_\(entrepreneur\)](https://en.wikipedia.org/wiki/William_Addis_(entrepreneur))
12. [https://en.wikipedia.org/wiki/Washington\\_Sheffield](https://en.wikipedia.org/wiki/Washington_Sheffield)

### 〈교신저자〉

- 권 훈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50-2 미래아동치과
- Tel. 062-672-2543, Email: 2540go@naver.com

## 대한치과의사학회 활동내역

### 1. 2016-08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 일 시 : 2016년 3월 10일(목) 오후 7시
-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신사옥(강강술래 서초점 건물)
- 참 석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박정철, 이동운, 강경리
- 안 건 : 1. 2015년 종합학술대회 종합평가 및 Checklist 수정
- 2. 학술집담회 준비
- 3.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 수정
- 4. 의료관리학회(회장: 조영식) 등 소 학회 공동학술대회 dusrn
- 5. 치의학회 분과학회 협의회 청취

### 2. 2016-09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 일 시 :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7시
-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 참 석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박정철
- 안 건 : 1. 2016년 종합학술대회 준비- 부분별 준비
- 2. 한국치과의학 교육발달사 기술 건 (대학에 자료요청)
- 3. 남기고 싶은 나의 가족사 (3세대 혹은 한가족 4인 이상 치과의사)
- 4. 의료인이 알아야 할 최근세사

### 3. 2016-10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오후 7시
-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 참 석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강경리, 창동욱, 이동운, 박정철
- 안 건 : 1. 2016년 종합학술대회 준비

### 4. 2016-11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리산 삼성타운점 서초대로 74길(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빌딩 지하1층)
- 참 석 : 신재의, 변영남, 김종열, 차혜영, 홍예표, 박준봉,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이동운, 강경리, 창동욱
- 안 건 : 1. 의전에 관한 안건 : 영결식 주도(학회 예우차원) 내규에 넣어서 명문화  
후생이사 : 경력과 사진을 매년 version up

2. 공지사항: 7월 9일 이병태 명예회장 별세 서울대병원 7월 12일 발인

5. 2016년도 치과의사학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 9차 워크샵

일 시 : 2016년 7월 23일 14시 ~ 16시 30분

장 소 : 대전역 회의실(해화실)

참 석 : 박준봉, 이해준,박호원, 손우성, 강신익, 조영수, 최홍란, 유미현, 강명신, 이주연, 권 훈, 김준혁

대주제 : 치과의사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21세기 치의학의 길을 묻는다    2. 책 번역에 관한 논의

6. 2016-12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후 7시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참 석 : 박준봉,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박정철

안 건 : 1. 의전에 관한 안건 : 영결식 주도(학회 예우차원) 내규에 넣어서 명문화

        총무간사 : 경력과 사진을 매년 version up

        2. 이창규 원장(고 이병태 명예회장 차남) : 50만원 학회 기증

        3. 학회 명칭: 대한 악안면 역사문화 학회

        (The Korean Academy of Maxillofacial History & Culture)는 어떨는지?

7. 추계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번개모임

일 시 : 2016년 8월 31 일(수 ) 오후 7시 30분

장 소 : 똑심한우

참석자 : 박준봉,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내 용 : 추계학술대회 준비

8. 추계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번개모임

일 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참 석 :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강경리, 창동욱

안 건 : 추계학술대회 준비

9. 2016년 대한치과의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16년 11월 6일 (일) 09:00 ~ 18:00

장 소 : 경희대학교(회기동) 청운관 B1 박종기대사홀

주 제 : ‘What is Dentistry?’ (치의학이란 무엇인가?)

09:10 ~ 10:10	치의학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	이주연 원장	류인철 부회장
10:10 ~ 11:10	교합기의 역사와 임상 응용	손미경 교수	
11:10 ~ 11:40	포스터 발표 및 Coffee break		
11:40 ~ 12:40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영국여행	권 훈 원장	권공록 부회장
12:40 ~ 13:10	런천-업체 강연 / 경품권 추첨 1		이해준 총무
13:10 ~ 14:10	Lunch / 포스터 심사		
14:10 ~ 15:10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미래	김종열 명예교수	
15:10 ~ 15:40	포스터 시상, Coffee Break		변영남 고문
15:40 ~ 16:40	우리가 악안면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	이부규 교수	백대일 교수
16:40 ~ 18:00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는?	김희진 교수	

10. 2016-14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7시

장 소 : 선능역 동보성

참 석 : 김종열, 변영남, 신재의, 박준봉,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강경리, 권 훈,

안 건 : 1. 면허번호 2만번대의 무소속(개원의나 공직이 아님)이 월등히 많이 참석. 보수교육 점수를 얻기위해 등록한 것 같다.

        2. 치과의사학 교수가 연자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3.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의 역사도 기록하자.

        4. 경품은 점심에 하는 것이 좋겠다.

        5. 협회 학술대회에 치과의사학과 윤리학 관련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6. 3월 정기총회장소: 서울대 치과병원

11. 2016-15次 大韓齒科醫史學會 理事會

일 시 : 2017년 2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가이스트리히 코리아 강남사옥

참 석 : 박준봉, 류인철, 이해준, 김진철, 김남윤, 강경리, 이동운, 창동욱

안 건 : 1. 3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1층 제 1강의실(120명)

        연자와 연제 2월 20일까지 준비바람.

        뒤풀이 장소: 대학식당이나 효제 추어탕집:

        임원 개선

        신임회장 인터뷰

        2. 3월 중순 경 감사

        3. 현 집행부는 대한치주과학회 출신이 많아서 차기 집행부는 치과의사학을 전공한 이사가 필요하다. 현재와 접목된 치과의사학이 필요하다.



#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 (1960. 10. 7 창립)

1984. 6.30 제정  
 1986.10.14 인준  
 1987. 3.11 개정, 1990. 5.28, 개정, 1995. 5.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13, 개정, 2016. 6.21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 제 2 조
-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사 업

- 제 4 조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 제 3 장 회 원

- 제 5 조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 1항
- 정회원은 치과의사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 2항
-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 6 조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 1 항
-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 2 항
-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 7 조
-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제 1 항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제 2 항
-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제 8 조
-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 4 장 기구 및 선거

- 제 9 조
-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 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 장 1명
4. 부 회 장 3명
5. 총 무 1명
6. 이 사 약간명
7. 감 사 2명
- 제10조
-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11조
-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 제12조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 제14조
-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재무부：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3. 대외협력부：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4. 정보통신부：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5. 섭외부：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6. 학술부：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7. 교육부：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8. 국제부：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 기획부：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1. 정책부：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12. 연구부：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13. 법제부：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14. 총무간사：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 제15조
-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 제17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 제18조
-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 제 5 장 총 회

- 제19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 결된다.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회칙에 관한 사항

제 2 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 3 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 4 항 사업에 관한 사항

제 5 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제 6 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 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세 칙

1.입회비: 5만원

2.연회비: 3만원

3.평생회비: 10년간의 연회비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서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

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가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 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라고 주장했다. 3, 9-13).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2는, 김 등2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X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 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 째 주 및 6월 첫 째 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편집부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강경리 교수  
 T e l : 02-440-7515, Fax : 02-440-7549, email : periokkl@khu.ac.kr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고	문	김 정 균	교재위원장	김 병 옥	이	사	조 영 식
고	문	박 승 오	총 무 이 사	이 해 준	이	사	박 영 준
고	문	신 재 의	재 무 이 사	김 진 철	이	사	박 덕 영
고	문	변 영 남	대 외 이 사	김 남 운	이	사	이 주 연
고	문	김 평 일	교 육 이 사	강 명 신	대 학 이 사	강 신 익	
			학 술 이 사	이 우 철	대 학 이 사	박 호 원	
자 문 위 원		김 종 열	편 집 이 사	강 경 리	대 학 이 사	이 재 목	
자 문 위 원		차 해 영	섭 외 1 이 사	창 동 옥	대 학 이 사	박 찬 진	
자 문 위 원		허 정 규	정 통 이 사	이 동 운	대 학 이 사	김 성 태	
자 문 위 원		홍 예 표	정 책 이 사	권 훈	대 학 이 사	김 지 환	
자 문 위 원		백 대 일	기 획 이 사	유 동 기	대 학 이 사	이 흥 수	
			연 구 이 사	박 영 범	대 학 이 사	최 홍 란	
명 예 회 장		이 병 태	국 제 이 사	백 장 현	대 학 이 사	박 용 덕	
회 장		박 준 봉	법 제 이 사	박 정 철	대 학 이 사	박 병 건	
부 회 장		류 인 철	총 무 간 사	임 해 수	대 학 이 사	유 승 훈	
부 회 장		김 희 진	이 사	임 용 준	대 학 이 사	조 영 수	
부 회 장		권 공 록	이 사	이 준 규	감 사	배 광 식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제 35권 제2호 통권 38호 2016

Vol 35, No 2, 2016

발 행 인 : 박준봉	Publisher : Joon Bong Park
편집이사 : 강경리	Editor-in-Chief : Kyung Lhi Kang
인 쇄 일 : 2016년 12월 24일	Printig date : December 24, 2016
발 행 일 : 2016년 12월 31일	Publication date : December 31, 2016
발 행 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Published by :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06154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74, 207호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이해준 치과의원 전화) 02-558-2440, 팩스) 02-558-2443 http://cafe.daum.net/denhistory	Bongeunsa-ro 474, Suite 207, Gangnam-gu, Seoul, 06154 Lee Hae Jun Dental Clinic Tel : +82-2-558-2440, Fax : +82-2-558-2443 http://cafe.daum.net/denhistory
편집인쇄 : 도서출판세계	Edition&printing : Publishing World

